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9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시편 · 빌립보서 · 골로새서 · 데살로니가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Contents

- 8 1과 여호와의 밤
- 16 매일성경묵상 빌립보서 1장 ~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1장 ~ 골로새서 2장
- 24 2과 내가 주는 물을
- 32 매일성경묵상 골로새서 3장 ~ 골로새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 데살로니가전서 4장
- 40 3과 내가 그라
- 48 매일성경묵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편 63편 ~ 시편 67편
- 56 4과 이러한 일
- 64 매일성경묵상 시편 68편 ~ 시편 73편
- 72 5과 어디서 떡을 사서
- 80 매일성경묵상 시편 74편
- 82 부록 아브라함

9 September 2013

주 일	월 요 일	화 요 일	수 요 일
1 제6차 성찬식	2 빌립보서 1장	3 빌립보서 2장	4 빌립보서 3장
8 교회설립주일(가족연합예배) 교회설립기념특별찬양예배	9 골로새서 3장	10 골로새서 4장	11 데살로니가전서 1장
15	16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시편 63편	18 시편 64편
22	23 시편 68편	24 시편 69편	25 시편 70편
29	30 시편 74편		

10
Octo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 발립보서 4장

6 골로새서 1장

7 골로새서 2장

12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 시편 65편

20 시편 66편

21 시편 67편

26 시편 71편

27 시편 72편

28 시편 73편

교회 주요일정

9월 1일

제6차 성찬식

9월 8일

교회설립주일(가족연합예배)

교회설립기념특별찬양예배

나의 주요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김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❻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❼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❽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❾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주는 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유한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2013년 9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1

주간총회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여호와의 밤

| 초 점 |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면 구원이 있다

| 찬 송 |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본문 | 신명기 16:1

아빔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빔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 주일

4 수요일

☐ 필립보서 3장

5 목요일

☐ 빌립보서 4절

2 월요일

☐ 빌립보서 1장

6 금요일

☐ 골로새서 1장

3 화요일

☐ 빌립보서 2장

7 토요일

☐ 골로새서 2장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사십여 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구속계획을 진행시키시려고 새로운 세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세대는 모압 평지에 모여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 맞은편에서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되새기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갱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요약해 보십시오.

구 분	내 용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유월절에 대한 언급은 신명기 16장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월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니다.

※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 23:1~2,4~5

여호와와 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던 유월절,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밤이었습니다.

출 12:12 _____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완악한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여호와와 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하며 고통스러웠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죽음의 진노로 다가오시던 그 공포의 밤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는 밤이었습니다.

출 12:13 _____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철저하게 맛보는, 그야말로 여호와와 영광이 놀랍도록 드러나는 밤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한 밤에 심각한 차이를 가져오게 한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보여 주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밤은 가장 깊은 어두움과 찬란함이 동시에 비추어지던 밤이었습니다.

고전 11:23~25 _____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가장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
를 시작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히 밀려오던 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밤은 그
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참된 거룩하심이 찬란하게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 예수님이 맞이하신 마지막 밤을 비교해 보십시오.

영적인 어두움이 밀려오던 밤	거룩하심이 찬란하게 빛나던 밤
1	1
2	2
3	3
	4

마 26:45~46 _____

그 밤은 유월절 여호와의 밤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듯이 여전히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려던, 가장 깊은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
시던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주의 성만찬

여호와와의 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성만찬의 은총으로 가득했습니다.

눅 22:19~20 _____

여호와와의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셨던 놀라운 감격의 식탁을 지속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벧전 1:19~21 _____

예수님이 제정하신 식탁은 진실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참여하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고전 10:16 _____

주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드러내신 구주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먼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와 영혼의 고난당함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그의 희생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구주를 잡던 그 밤에,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고전 11:26 _____

아 5: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 ②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는 기쁨을 주소서.
- ③ 충현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든든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1. 1월 1일 (목요일) - 1월 1일 (목요일)
 2. 1월 2일 (금요일) - 1월 2일 (금요일)
 3. 1월 3일 (토요일) - 1월 3일 (토요일)
 4. 1월 4일 (일요일) - 1월 4일 (일요일)
 5. 1월 5일 (월요일) - 1월 5일 (월요일)
 6. 1월 6일 (화요일) - 1월 6일 (화요일)
 7. 1월 7일 (수요일) - 1월 7일 (수요일)
 8. 1월 8일 (목요일) - 1월 8일 (목요일)
 9. 1월 9일 (금요일) - 1월 9일 (금요일)
 10. 1월 10일 (토요일) - 1월 10일 (토요일)

1월 11일 (일요일)

1월 12일 (월요일)

1월 13일 (화요일)

1. 1월 14일 (수요일) - 1월 14일 (수요일)
 2. 1월 15일 (목요일) - 1월 15일 (목요일)
 3. 1월 16일 (금요일) - 1월 16일 (금요일)
 4. 1월 17일 (토요일) - 1월 17일 (토요일)

ART. 10. - REDAZIONE E AMMINISTRAZIONE - La "Gazzetta di Milano" è pubblicata giornalmente, eccettuati i giorni festivi, e le festività riconosciute dallo Stato.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55: 103–110

Figure 1. The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the solution on the adsorption of the dye.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22(1) 3-17
© The Author(s) 2013
Reprints and permissions: sagepub.com/journalsPermissions.nav
DOI: 10.1177/1056492613500501
<http://jmi.sagepub.com>

2

월요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찬송가 289장

묵상노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 압블리를 거쳐 마게도나 지방의 첫째 가는 도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이 이를 막으셨습니다(행 1:5). 빌립보서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만나 복음의 귀한 동역자가 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믿음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3절). 그것은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14절).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17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18절)임을 말하며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27절).

보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와 분명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보이는 겉치레와 겉과를 보고 성도들은 믿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21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후 4:7)는 말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케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을 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빌 1:27)

Whatever happens,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Then, whether I come and see you or only hear about you in my absence, I will know that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contending as one man for the faith of the gospel(Phil. 1:27)

• 참여하고(5절) : ‘교제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단어는 협력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이 용어는 종종 금전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경제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빌립보인들이 준 재정적 도움을 말한다(빌 4:10~20).

기도제목

①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짐을 감사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이 마음을 품으라

3

화요일

빌립보서 2장

찬송가 385장

묵상노트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14절) 권면합니다. 그리고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으라고(1~2절)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는 원망과 시비, 그리고 다툼이나 허영으로(3절) 교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6~8절). 결국 보이는 그것들, 바로 원망, 시비, 다툼, 허영으로 확인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이것은 안 된다고 소리치고 외칠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며 교제를 하고 위로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함께 베풀고 나눕니다. 그러나 그림에도 한마음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다 각각의 교제와 각각의 권면과 각각의 위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22절), 믿음의 형제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호전되었습니다(27절).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29절). 누구를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행복하십시오(10절). 믿음의 식구들이 귀한 이유는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 원망과 시비(14절) : ‘원망’과 ‘시비’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으며 구약은 그것을 정죄했다. 그들은 모두 다 멸망했다. 원망과 시비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였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Phil. 2:5)

기도제목

①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 가운데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4

수요일

빌립보서 3장
찬송가 96장

묵상노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2절)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신뢰하는(4절) 것과 연관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18절)와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한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8절).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습니다(7절).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했었다고,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그러했다고 말합니다(4절). 그것은 누구도 헤낼 수 없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자라 있었고 공로였습니다. 그는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4~6절).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8절).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말하며, 그들의 마침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했습니다(18~19절). 세상이 추구하는 소망과 십자가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길(12,14절)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이정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되었다고 말하며,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20절).

• 배설물(8절) : 배설물이라는 말은 보통 대변 혹은 버려야 할 음식으로 개들이나 좋아할 것(빌 3:2)을 의미했다. 쓸모없는 것이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What is more, I consider everything a loss compared to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se sake I have lost all things. I consider them rubbish, that I may gain Christ(Phil. 3:8)

기도제목

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쫓대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② 중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일체의 비결

5

목요일

빌립보서 4장

찬송가 93장

묵상노트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4절)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6절). 그러면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6절). 사도 바울은 궁핍했습니다(11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할 때 (빌 1:17),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외면하지 않고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입니다(12절).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지, 우리가 왜 어려움을 받게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8절)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의 채우심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십시오.

·참여(14절) : 참여(협력)라는 말은 고대 시업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것은 바울이 궁핍함에 처했을 때 빌립보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한 헌금을 보낼 때 사용했던 특별한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것은 16절의 나의 쓸 것과 연관된다. 이 말 역시 자출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있는 사임을 서류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Phil. 4:12)

기도제목

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6

금요일

골로새서 1장
찬송가 146장

묵상노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2절).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이 너무나도 감사함을 고백합니다(4~5절). 감사의 이유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는 언어로 칭했습니다(25절).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비밀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 비밀은 십자가를 말했습니다(20절). 복음은 너무나도 신비한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언어는 은밀한 언어이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신비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골 2:2)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할지도 모릅니다. 굳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익숙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소망' (27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29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눅 13:27)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To them God has chosen to make known among the Gentiles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Col. 1:27)

• **비밀(26절)** : 이 비밀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진술은 자신들이 특별하고 선별된 계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골 2:8)을 반박하는 말이다.

기도제목

① 주님이 나의 영광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님 따르기를 힘쓰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7

토요일

골로새서 2장
찬송가 494장

묵상노트

교묘한 말과 속이는 말이 있었습니다(4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교묘한 말과 속이는 말,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교문을 따름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었습니다(8절).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10절). 예수님이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면 교회는 절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교묘한 말과 속이는 말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왔고, 그러한 사상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교문을 따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의 힘과 이 세상의 영광과 권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왕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십자가가 칼로 변하여 세상을 호령하며 왕으로 등극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15절).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고, 그들은 패했다고 말하며,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교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20절)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매력적이고, 신앙을 풍성하게 이끄는 것 같았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었습니다(23절).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사 53장).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감없이 대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살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5)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Col. 2:15)

• 구경거리(15절): 이제 절대적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개신 행진에서 포로로 드러나게 되었다. 구경거리는 로마인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였다. 로마의 개신식에서 장군은 최고의 신 주피터처럼 옷을 입고, 그 뒤로 소유물을 다 빼앗긴 굴욕에 찬 포로들을 이끌었다. 그리스도는 최고로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 주신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의
 삶



충현교회는 주님의 교회

어느덧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설립한 지 60년이나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 어느 일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 1:16). 그러나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는 진리 등대가 되어서 험한 바다를 비추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있을 때에만 복음의 진리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간충현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내가 주는 물을

|초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구원이 있다

|찬송|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본문|요한복음 4:13~15

⁽¹³⁾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¹⁴⁾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¹⁵⁾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8 주일

9 월요일

☐ 골로새서 3장

10 화요일

☐ 골로새서 4장

11 수요일

☐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 목요일

☐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 금요일

☐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 토요일

☐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예수님은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이 길로 가시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가장 가까운 길로 가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써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의도이든지 결국 이 사역의 길에서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곳은 '수가' 라고 하는 동네였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요 4:3~5 _____

※ '수가'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차별을 경험하는 곳

사마리아 지역은 많은 것이 나누어져 있는 차별의 장소였습니다.

요 4:9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신 곳은 과거 솔로몬의 찬란했던 부귀와 영화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던 영토였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그곳은 '유대' 나라와는 배타적인 국가, '사마리아'라는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성에는 두 민족으로 나누어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누어지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사마리아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으나(창 2:24), 이곳 수가 성의 우물가는 여성들의 고달픈 수고가 배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상실된 차별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 수가 성에는 평범했던 한 여인이 외톨이로 변해버린,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한 여인의 고독함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이 여인의 영혼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골 3:11 _____

차별을 소멸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차별을 소멸하셨습니다.

요 4:29 _____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의 땅에서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차별을 소멸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유대인과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만남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 4:39~42 _____

엡 2:16~18 _____

진실로 사마리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나누어졌던 모든 갈등과 대립과 차별을 자신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소멸하시고 참된 만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진정으로 만나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샘물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는 생명의 샘물을 차별이 없이 주십니다.

요 4:13~14 _____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아무런 차별이 없는 놀라운 샘물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허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빈부나 애씀이 분별이 없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값없이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샘물인 것입니다. 오래 전 선지자들이 꿈꾸고 알려주었던 놀라운 영생수이며, 주인이 직접 허락한 모두에게 주어진 생명의 샘물입니다.

요 7:37 _____

사 55:1 _____

계 22:17 _____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가정이든 모든 이들이 각자가 겪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안에서, 모두가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를 향하여 차별이 없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가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진실로 교회와 가정 안으로 또다시 목마르게 될, 이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시원한 생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두 함께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물을 길어 나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요 4:14 _____

요 14:20 _____

요 15: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 ②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종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도전 쿠키를 주님께 올릴 수 있

“이제부터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를 시작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전과제-도전과제 올릴 수 있

1.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2.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3.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4.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5.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6.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7.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8.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9.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10.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11.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12.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13.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14.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9

월요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골로새서 3장
찬송가 251장

묵상노트

교묘한 말로 속임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심각하게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 위협은 믿음을 사로잡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1절)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극단이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극단의 강한 권면은, 만약에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었고 탐심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게, 그리고 종들과 상전들에게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23절).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2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3절).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불가능과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17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en. (Col. 3:23)

• 위의 것(1절): ‘위의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18에서는 꾸며낸 경건과 천사 숭배로 이 위의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로 보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단 한 가지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기도제목

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2절)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3절). 그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5절) 권면합니다. 소심한 것이나 신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표현이었습니다(6절).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요 6:28). “주님,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9). 여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르시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와 예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데마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늑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킵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믿음의 식구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을(딤후 4:2) 기억하십시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골 4:5)

Be wise in the way you act toward outsiders;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Col. 4:5)

기도제목

- ①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 세월을 아끼라(5절) :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니엘 28에서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쓰이기도 했다. 헬라어로는 ‘기회를 사라’는 의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찬송가 398장

묵상노트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행 17:2).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습니다(행 17:5). 그들은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행 17:10). 쫓겨 간 것입니다. 복음이 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도망갔고 쫓겨간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6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단지 세 안식일에,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9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았습니다(행 16:7). 그리고 만난 것이 바로 빌립보 도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나팔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한 영혼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살전 1:9) for they themselves report what kind of reception you gave us. They tell how you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1Thes. 1:9)

•우상을 버리고(9절) : 데살로니가는 외국 종교를 많이 수용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주요 이교 중 파 중에는 디오니수스 같은 전통적인 헬라 신에 대한 숭배뿐만 아니라 애굽의 세라피스와 이시스 숭배도 있었다. 일부 창류종에서는 사모드라게의 예게해 섬에서 생겨난 카비루스 예배를 후원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가운데 그것을 모두 거부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기도제목

① 전도와 선교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소망하며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소서. ② 총천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12

목요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찬송가 149장

묵상노트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된 줄 알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1절). 빌립보에서의 큰 고난과 능욕은 도리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행 16:40~17:1).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습니다(13절).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살전 1:2, 2:13).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쭐해 하거나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3절).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성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놀라지 않으며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4절) 이 권면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사모하며 복음 뿐 아니라 복음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습니다(8절). 그는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이며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19~20)절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쁘고 즐겁고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라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20)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 2:13)

And we also thank God continually because, when you received the word of God, which you heard from us, you accepted it not as the word of men, but as it actually is, the word of God, which is at work in you who believe. (1Thes. 2:13)

• 사람의 말(13절) :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문화에는 신이 보낸 사자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있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그렇게 받지 않음이 감사했다.

기도제목

① 믿음의 식구를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끝까지 함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데살로니가전서 3장
찬송가 501장

묵상노트

바울은 그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살전 2:20) 표현합니다. 그들이 기쁘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살전 1:9).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습니다(살전 1:10).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합니다(1절).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디모테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함(2절)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었습니다(7절).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성도의 교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보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습니다(6절).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7절) 말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식구가 위로와 기쁨을 주게 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히 이들이 보고 싶어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10절)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쁨은 충만합니다. 선교를 가고 전도를 가서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또 다음 소식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들을 때, 복음을 전한 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며 간구하게 하며, 또한 그들을 다시 만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다 못하여(5절) : 당시 서신 저자들은 종종 답장을 빨리 못 받았을 때 그들의 감정이 상한다고 불평했다. 이러한 불평은 애정의 상징이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살전 3:6)

But Timothy has just now come to us from you and has brought good news about your faith and love. He has told us that you always have pleasant memories of us and that you long to see us, just as we also long to see you. (1Thes. 3:6)

기도제목

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귀한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4

토요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찬송가 570장

목상노트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9절). 그들은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를 알았고 또 그대로 행했습니다(1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산 성도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13절).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기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죽음을 맞이한 성도를 보면서 그들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18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은 슬퍼하는 위로가 있었습니다(13절). 그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것을 따라가는 듯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위로는 이런 위로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14절)라고 시작하는 이 위로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주께서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성경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가 저 하늘에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위로받으며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님을 믿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위로함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믿음의 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끝날 것입니다. 그 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 슬퍼하지 않게(13절) : 대부분의 이교도는 자승에서 덧없는 내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유대인과 근동 사람들은 사람을 정화시키는 비탄 의식에 참여했다. 그들은 슬퍼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왜냐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

Therefore encourage each other with these words.(1Thes. 4:18)

기도제목

① 천국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늘의 위로를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풀소서.

기도노트

그리스도인과 추석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전 10:20)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석은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은 있지만, 조상에 대한 차례, 성묘 방식 등 제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석과 같은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집안 친척 간에 소외되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명절 때에도 이방인처럼 소외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집안 일에 앞장서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그리스도인들이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직면하는 문제의 핵심은 제사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보아야 한다. 토속 종교와 혼합된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들은 죽은 조상의 귀신이 제삿날이나 명절 때 찾아온다고 믿는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진실로 추석 명절에 죽은 조상 귀신이 찾아와서 후손들이 준비한 제사상을 받는가?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한 귀신의 정체는 이러하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 된 천사(욥 38:6~7 ; 골 1:16) 중 일부가 타락했는데(벧후 2:4 ; 유 1:6 ; 사 14:12~20) 그 중에 두목이 사탄(혹은 마귀)이고 귀신은 그 졸개들이라는 것이다. 사탄은 천사장급의 높은 천사였으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으로 하나님 께 반란을 일으켜 추방당한 존재이며, 귀신은 그 졸개들이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며(마 17:18 ; 막 9:25), 지적인 존재(딤후 4:1~2)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이 접근치 못하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탄이나 귀신은 부도덕한 존재, 악한 영(딤후 4:1~2)으로 인간을 유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들이 아니다. 단순히 타락한 천사들로, 악한 영들이므로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 제삿날이나 명절날에 찾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조상신은 없는 것이다. 단지, 조상을 보았다는 말은 전적으로 사탄의 술수이다. 악한 사탄과 귀신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조상의 형상으로 위장해 마치 죽은 조상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이다. 교묘한 사탄과 귀신의 속임수에 현혹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고후 11:14).

3

주간충현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내가 그라

| 초 점 |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

| 찬 송 |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재

| 본 문 | 요한복음 4:19~26

☞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서 남이라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
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
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5 주일

16 월요일

☐ 태실로나가전서 5장

17 화요일

☐ 시편 63편

18 수요일

☐ 시편 64편

19 목요일

☐ 시편 65편

20 금요일

☐ 시편 66편

21 토요일

☐ 시편 67편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 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밝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요 4:19).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멈추고, 예베라는 대중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요 4:20 _____

그녀가 이처럼 주제를 바꾼 것은 아마도 자신의 감추고 싶은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서 벌어졌고, 여전히 갈등의 문제로 남아있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선지자처럼 여겨지는 이에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묻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질문이 섞인 언급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예배에 대하여 선언하십니다.

요 4:21 _____

요한복음 4:21은 진실로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통치 이후로 남 왕국과 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서로에 대해 경멸과 대립하는 상황을 종결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유대인들을 매우 분노하게 만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섬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요한복음 4:21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배의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요 4:23~24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과 □□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과 □□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 4:24 _____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spirit)으로 드린다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이며, 반면에 진리(truth)로 드린다는 것은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 영으로(in spirit)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 진리로(in truth)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히 9:9,24 _____

내가 그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4:25~26 _____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처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지는 참된 예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_____

요 10:30 _____

2. _____

요 8:19 _____

3. _____

요 14:6 _____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마 1:16 _____

행 3:20 _____

행 18:28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 ②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③ 우리 구역(팀)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설교노트

1. 주일학교 수업의 필요성
 2. 주일학교 수업의 목적
 3. 주일학교 수업의 내용
 4. 주일학교 수업의 방법
 5. 주일학교 수업의 평가
 6. 주일학교 수업의 과제

1월 10

1월 20

1월 30

1월 40

1. 주일학교 수업의 필요성
 2. 주일학교 수업의 목적
 3. 주일학교 수업의 내용
 4. 주일학교 수업의 방법
 5. 주일학교 수업의 평가
 6. 주일학교 수업의 과제

—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opyright © 2004 John Wiley & Sons, Ltd.

Source: *Author's calculations*.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55: 111–118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찬송가 287장

묵상노트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6절), 그리고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고(8절) 권면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16~18절).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이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고로움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것은 자는 사람이라고(6절) 정의하며,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춘 어둠에 속한 것(5절)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으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말씀이나 예수님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2~23).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대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3절)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살전 5:6)

So then, let us not be like others, who are asleep, but let us be alert and self-controlled. (1Thes. 5:6)

•범사에 헤아려(21절) : 이것은 전 문맥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을 말한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했다. 몇몇 헬라 종교 의식이 황홀경에 빠져서 영감을 받는 관행을 시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영감을 이교의 명감과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도제목

- 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17

화요일

시편 63편

찬송가 415장

묵상노트

다윗은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1~2절). 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든다고 찬양합니다(3~4절). 다윗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자신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즐겁게 노래한다고 고백합니다(5~7절).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만 멸망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8~11절).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안전을 갈망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는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려있음을 알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의 상황에 관계없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이 없어 황폐한 유다 광야와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세상이 주는 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의 물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인생 길을 걷다가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시 63:1)

O God, you are my God, earnestly I seek you; my soul thirsts for you, my body longs for you, in a dry and weary land where there is no water. (Ps. 63:1)

• 생령(3절) : 사람의 '목숨' 그 자체를 포함하여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기도제목

- 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편 64편
찬송가 543장

목상노트

하나님께 원수가 주는 두려움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다윗은 독한 말로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숨겨 주시기를 구합니다(1~4절). 악한 자들은 몰래 올무를 놓고 죄악을 꾸미면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5~6절).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악한 자들은 엎드릴 것이라 말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며 선포하게 될 것이라 단언합니다(7~9절).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10절).

다윗은 모반의 위기 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합니다. 다윗의 대적은 여러 거짓말로 다윗을 공격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 올무를 놓고 거짓을 행하는 것처럼 지금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려고 온갖 거짓과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는 치밀해서 세상에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더 극심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위기 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 자랑하리로다(10절) : 그들은 그분 안에서 찬양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시 64:9)
All mankind will fear; they will proclaim the works of God and ponder what he has done. (Ps. 64:9)

기도제목

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19

목요일

시편 65편

찬송가 197장

묵상노트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찬송하며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함으로 나아갑시다(1~2절). 그는 죄악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의 허물을 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의 성전에서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3~4절). 다윗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뿐 아니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고 노래합니다(5~7절). 또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곡식을 주시며 그 밭에 싹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단비를 주신다고 찬양합니다(8~10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과 산과 초장과 골짜기에서 양 떼와 곡식을 풍성하게 하셔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11~13절).

다윗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는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온 천하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소유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요 10:10).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시 65:5)

You answer us with awesome deeds of righteousness, O God our Savior, the hope of all the ends of the earth and of the farthest seas.(Ps. 65:5)

• 띠를 띠었나이다(12절) : 많은 물로 덮였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피조물로 확대되었다는 의미이다.

기도제목

①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②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한기위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20

하나님의 연단은 은혜

금요일

시편 66편
찬송가 342장

묵상노트

큰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시인은 선포합니다(1~4절). 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5~8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단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짐을 자신들에게 주셨지만, 주님께서 불과 물을 통과한 그들을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고백합니다(9~12절). 시인은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말합니다(13~15절).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선포합니다(16~20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시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단련과 그 이후의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오히려 감사하며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순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시간임을 알고 이런 시간일수록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고전 10:13).

•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
이다(12절) : 엄청나게 고
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시
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보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
지도 아니하셨도대시(66:20)

Praise be to God, who has not rejected my prayer or withheld his love from
me!(Ps. 66:20)

기도제목

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의 재단들**
(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
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의 빛을 비추소서

21

토요일

시편 67편

찬송가 293장

묵상노트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1~3절). 또 주님께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심으로 인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4~5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땅 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6~7절).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구원하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게 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들의 믿음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이방 민족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바로가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었고(창 41:38~39),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단 6:26~27).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알고 돌아오며 찬송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시 67:7)

God will bless u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fear him. (Ps. 67:7)

• **얼굴 빛(1절)** :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다.

기도제목

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오직 예수님만 섬겨 주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시댁은 믿지 않는 집안이었으며 시어머니는 지독한 불교 신자였다. 절로 할 때 예수쟁이 만나면 부정 탄다며 언제나 이른 새벽에 다니셨다. 그래서 때마다 해 오시는 부적을 가족마다 지녀야 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신경 쓰는 것이 단 하나 있었다. 언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예수를 믿을 거라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셨다.

그 때가 왔다. 드디어 언니의 인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다. 본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나는 무엇인지 모를 큰 기쁨과 설렘으로 믿음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머니 모르게 믿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자리에 누워 지내게 되셨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시어머니를 구원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겨 주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다. 은연중에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암시했지만 직접적으로 어머니께 교회 가시자고 말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다. 어머니가 우리는 장남이므로 절대로 교회에 다니면 안 된다고 대못을 박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4년 동안 시아버지를 수발하시던 시어머니는 너무 힘이 든다며 아버지를 요양 병원으로 모시자고 했다. 시아버지가 요양 병원으로 가셨던 그해 추석, 음식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짜고짜 나에게 “너 교회 다니냐?” 물으셨다. 순간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주님이 주신 담대함이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승리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잠시 후 내 옆에 앉으시며 “언제부터냐? 아범도 다니냐?”라고 물으셨다. 그때 남편은 교회는 갔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우리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 기사 역할만 했다.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시듯 “어쩌냐, 내가 절에 다니는 것도 너희를 위

한 것인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할 수 없지. 열심히 다녀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다.

추석, 집안 분위기는 우울했지만 나는 이제 마음 편히 교회에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교구에서 식구들이 오셔서 위로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는 이젠 며느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실감하셨는지 위로예배도 참석하시고 목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하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에게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했다. 하나님은 남편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셨나 보다. 새가족부에서 말씀과 은혜 주시며 양육하게 하시고 학습 받고 장년부 예배까지 인도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나의 입술을 열게 하셨다.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 교회 가셔야죠? 예수님 만나셔야죠?” 말씀드리면 “그래, 가야지. 곧 가마. 나도 이제 교회 가야지” 말씀뿐이셨다. 구역예배 드릴 때 첫 번째 기도제목은 언제나 어머니의 영혼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였다. “그래, 가야지. 곧 가야지” 하셨던 어머니는 예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드디어 오셨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어머니께 허락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안부 전화를 잘 드리지 않아도 어머니는 주일을 꼭 지키시며 동네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며 기쁨이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신다. 또 한 번의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지금, 남편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성찬식을 허락하셨다. 이 모든 기쁨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속삭인다. ‘주님, 주님.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전옥순(집사, 9교구)

4

주간총회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이러한 일

| 초 점 |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 찬 송 |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 본문 | 요한복음 5:16~18

¹⁶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¹⁷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¹⁸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2 주일

25 수요일

□ 시편 70편

26 목요일

□ 시편 71편

23 월요일

□ 시편 68편

27 금요일

□ 시편 72편

24 화요일

□ 시편 69편

28 토요일

□ 시편 73편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각종 병자들로 가득한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서른 여덟 해 된 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병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형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겪고 있는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 5:14 _____

서른 여덟 해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예수님은 소망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 38년 된 병자가 안고 있던 소망과 절망은 무엇입니까?(요 5:4,7)

· 소망 _____

· 절망 _____

이 병자는 번번히 사람들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반복되는 절망을 경험하면서
서도 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소망을 붙잡고 오랜 기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디
선언에 그의 질병은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요 5:8~9 _____

그의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과 경쟁으로 말미암은 절망의 반복은 순식간에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에게는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행하신 일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에 대해 유대인들의 반발이 불 일 듯이 번졌습니다.

요 5:10 _____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도 문제이지만, 특별히 병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요 5:14~15). 유대인들의 이러한 판단은 모세에 의해 기록된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인 십계명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 창세기 2:1~3, 출애굽기 20:8~11, 31:14, 레위기 19:30 말씀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행위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요 5:16).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더욱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요 5:17~18 _____

※ 유대인들이 판단할 때 예수님이 범한 두 가지의 죄는 무엇입니까?(요 5:18)

하나님의 아들이신 행하신 일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행하신 것입니다.

마 12:8 _____

※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의 영광과 권능을 예배하게 만드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안식일에 병자는 죄로 말미암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죄와 질병의 문제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이 세상의 끝 날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계 21:4 _____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는 주인으로서 행하신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 1:1~3 _____

요 20:30~31 _____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유대인들이 반발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에서 이탈되어졌고, 영혼에 대한 공허한 마음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러한 일'은 한 영혼을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증거하시는 일이었으며, 영혼을 찾아 가시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딤후 2:4 _____

딤후 2:1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총현교의 5대 목표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설교노트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23

월요일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68편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기뻐할 것이라 노래하고(1~3절), 연약한 자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4~6절).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임재하셨을 때의 위엄과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7~10절). 다윗은 또 이방의 왕들을 쫓아내며(11~14절), 높은 산에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15~18절). 하나님은 원수를 쳐서 깨뜨리며 그의 백성의 짐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에(19~23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24~27절).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셔서 이방의 나라들을 흠으시고 항복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28~31절). 그리고 다윗은 모든 왕국들에게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32~35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힘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의 도래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동시에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 비둘기(13절) : 하나님의 복으로 큰 번영을 누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대(셀라)(시 68:19)
Praise be to the Lord, to God our Savior, who daily bears our burdens.
Selah(Ps. 68:19)

기도제목

- 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깊은 수렁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1~4절).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이것으로 인한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합니다(5~12절). 다윗은 이러한 때에 수렁에서 그를 건져 주시고 큰 물이 휩쓸어 가지 못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13~15절). 그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16~18절). 그의 대적들은 다윗을 비방하여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19~28절).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온 천지만물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29~36절).

다윗은 그의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인 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21절)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수난을 받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시 69:16)

Answer me, O LORD, out of the goodness of your love; in your great mercy turn to me.(Ps. 69:16)

• **초(21절)**: 노예나 죄수들이 마시는 저급한 술, 무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마시게 했다.

기도제목

- 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 ② 출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25

수요일

시편 70편

찬송가 379장

묵상노트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찾는 자들에게서 그를 속히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1~3절). 그는 주를 찾는 자들은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게 되기를 구하며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하여 지체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4~5절).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속히' (1,5절) 임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들의 위협이 매우 가까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기 앞에서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위기와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할 뿐, 그것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이해(3절)** : 여기서는 냉소와 조롱의 뜻.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며 했던 말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며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시 70:5)

Yet I am poor and needy; come quickly to me, O God.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er; O LORD, do not delay. (Ps. 70:5)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언제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시인은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1~4절). 그는 주 여호와만 그의 소망이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5~8절). 시인은 그가 쇠약해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도우셔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되길 원합니다(9~13절). 그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14~18절).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보여 주신 후 다시 살리시고 더욱 창대하게 하시며 위로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19~21절).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움을 확신 있게 기대하며 찬양합니다(22~24절).

원수들은 시인의 힘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그를 위협합니다. 시인은 그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5~6절).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14절).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성취하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만, 소망을 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소망했던 것이 사라지게 될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둔다면 결국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상황에 상관없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살전 1:3).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 올 가장 좋은 날을 소망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 **소망(5절)** : 간절히 고대하다. 오랜 기간의 기다림을 의미한다.

• **소망(14절)** : 짧은 기간의 기다림. 하나님의 구원이 산속할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시 71:14)

But as for me, I will always have hope; I will praise you more and more. (Ps. 71:14)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땀샘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27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금요일

시편 72편
찬송가 92장

묵상노트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구합니다. 그는 공의로 재판하며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1~4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5~7절). 그의 다스림으로 원수들이 굴복하며 이방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모든 민족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8~11절). 그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건지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12~14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15~17절). 솔로몬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합니다(18~19절).

솔로몬 왕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왕상 3:9~12).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적당한 핑계 속에 스스로의 욕심을 감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화려하고 강력한 부와 권세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공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 달이 다할 때까지(7절) : 달이 없어지기까지 영원토록이라는 의미이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시 72:18)
Praise be to the LORD God, the God of Israel, who alone does marvelous deeds. (Ps. 72:18)

기도제목

① 참된 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세,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아삽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1~3절). 그는 악인들은 그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없어서 교만과 강포가 가득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소득을 얻고 악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대며 한탄합니다(4~12절).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만 종일 재난을 당하여 괴로워합니다(13~14절). 악인의 형통함이 그에게 고통이 되었으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노래합니다(15~17절). 그는 주님께서 악인을 파멸하시고 황폐하게 만드시며 그들의 형상을 멸하실 것이라 단언합니다(18~20절). 그는 스스로 어리석은 짐승과 같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21~23절). 그는 하늘과 땅에서 오직 주님 외에는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찬양합니다(24~28절).

아삽은 과거에나 오늘날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경건한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반면 어떻게 악인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며 실족할 뻔하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세상은 세상의 형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늘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시 73:25)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earth has nothing I desire besides you. (Ps. 73:25)

• **잠상(22절)** : 배해뭇 거대한 덩치를 지닌 동물로 어리석음의 상징이다.

기도제목

- ① 세상의 형통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비유내용	의미와 교훈
혼인 잔치 초청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처음엔 호소처럼 계속되나 끝내 거절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마 22:2~14).
썩난 무화과 나무	말세가 가까울 때에 성도는 시대적 특징을 분별할 수 있다(마 24:32~33).
열 처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소에 계속되는 준비가 필요하다(마 25:1~13).
달란트	인간에게는 각기 고유한 능력과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그 공적의 결과가 아니라 맡은 바 직분대로 열심을 다한 정도에 대하여 상급과 심판을 행하신다(마 25:14~30).
양과 염소	현재는 선과 악이 무원칙하게 혼돈된 것 같으나 훗날에는 확연히 구분되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마 25:31~46).
식물의 성장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 세상 끝 날이 마침내 온다(막 4:26~29).
깨어 있는 문지기	늘 깨어 일할 것과 아울러 재림의 급박성을 경고해 준다(막 13:34 ; 눅 12:35~40).
두 빛진 자	중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 감사할 것이다(눅 7:41~43).
선한 사마리아인	신앙 및 인격의 가치는 외적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그 순수성과 실천으로 평가된다(눅 10:30~37).
밤중에 찾아 온 벗	하나님은 열심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눅 11:5~8).
어리석은 부자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 생활에만 집착하는 자는 어리석다(눅 12:16~21).
선한 청지기과 악한 종	재림은 분명하므로 당장 심판의 위험이 없다고 태만하지 말고 평소에 맡은 바 직분에 성실해야 한다(눅 12:42~48).

예수님의 비유들(2)

자신이 복음 사역의 수행자이면서, 복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교사였던 예수님은 교훈이나 설교의 한 방법으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다. 비유란 문자 그대로 어느 한 사물이나 사건을 다른 한 사물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특히 심오하고 난해한 추상적 사상을 일상 생활의 친근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이해를 돕는 문학적 기법을 말한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와 같이 추상적 진리를 친근하고 쉽게 이해시키는 측면 외에도 특별한 경우, 즉 고의로 복음을 왜곡하려 한다거나 복음을 무시하려는 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 그 자체에 담긴 의미를 말하면서도 직접적 언급을 피하려는 경우에도 사용되었다(마 13:11).

비유내용	의미와 교훈
열매 없는 무화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복음을 받아들여 그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철저히 심판하신다(눅 13:6~9).
높은 자리	겸손은 세상적인 미덕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유한한 자로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다(눅 14:7~14).
망대 건축	주의 사역을 하기 전에 미리 세밀한 계획과 결단이 요구된다(눅 14:28~30).
전쟁하는 왕	성도는 영적으로 세상과의 전투를 수행하는 자인 바, 늘 자기 점검이 요청된다(눅 14:31).
잃어버린 드라크마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여자가 잃은 재산을 찾는 심정처럼 뜨겁다(눅 15:8~10).
탕자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신다(눅 15:11~32).
불의한 청지기	죄인도 세상 일에는 갖은 지혜와 꾀를 내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자신의 능력을 다 하며 특히 지혜를 다 하여야 한다(눅 16:1~9).
일하는 종	성도는 조그만 일을 하였다고 상급을 바라기 전에 그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눅 17:7~10).
과부와 재판장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눅 18:2~5).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달은 자만이 결국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눅 18:10~14).
열 므나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각자의 열매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눅 19:12~27).
선한 목자와 양	성도와 예수의 관계는 절대 사랑과 절대 의존의 관계이다(요 10:2~5).
포도나무와 가지	인간은 오직 생명과 구원의 주이신 예수 안에서만 참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요 15:1~6).

5

주간총회에 게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초점|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구원이 있다

|찬송|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본문|요한복음 6:1~5

①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②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③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④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⑤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사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9 주일

30 월요일

☐ 시편 74편

1 화요일

☐ 시편 75편

2 수요일

☐ 시편 76편

3 목요일

☐ 시편 77편

4 금요일

☐ 시편 78편

5 토요일

☐ 시편 79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선포하신 후,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요 6:1).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요 6:2~4).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인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요 6:5~6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질문은 단지 빌립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의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믿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 8:2 _____

삿 3:1 _____

시 66:10 _____

렘 17:10 _____

빌립의 계산적인 판단

빌립의 대답은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요 6:7 _____

빌립은 매우 빠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빠르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했고, 한 사람 당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즉시 전체 비용을 산출해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떡을 살 장소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떡을 살 비용을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이러한 계산이 단지 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 19:20~22 _____

믿음은 절대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헤아림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현실적인 판단



안드레의 대답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요 6:8~9 _____

안드레에게는 다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적어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마음은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께 그 현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의 모습 역시, 우리들에게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민 13:32~33 _____

삼상 8:19~20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갈 3:26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립과 안드레가 산출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배고픈 이들을 먹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표적은 화려한 퍼포먼스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행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만 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의 전부였습니다.

요 6:10~11 _____

‘부족할 것’이라는 빌립의 확신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안드레의 확신은 모두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성적인 확신들, 철저한 계산과 현실에 입각하여 판단한 그들의 대답과는 달리 들판에 모였던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고, 음식은 열두 바구니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시험이었습니다.

요 6:12 _____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시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부딪히는 삶의 모든 정황들의 문제를 놓고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빌립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대신에, 빠른 투뇌를 이용하여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현실에 충실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요 6:6 /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_____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일 5: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1.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2.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3.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4.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5.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6.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7.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8.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9.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2.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10월 10일 (목요일)

[illegible]

© 2006 The Authors
Journal compilation © 2006 Blackwell Publishing Ltd

출처: 2015년 12월 15일 기준

30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월요일

시편 74편
찬송가 313장

묵상노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시인은 하나님께 그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1~2절). 그는 그들의 원수가 성소에서 악을 행하며 성소를 불사르며 주님께서 계신 곳을 더럽혔다고 한탄합니다(3~8절). 시인은 더 이상 표적도 선지자도 없으며 대적이 그들을 비방하는 이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지 마시고 그들을 멸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9~11절).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심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용과 리워야단을 부수셨고 물을 내기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며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고 찬양합니다(12~17절). 시인은 하나님께 그들의 원수가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음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18~23절).

시인은 그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한탄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심을 믿어야 합니다(12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왕이신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삶이 자신의 인생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 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앳바들가(19절) : 방어할 능력이 없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시 74:12)

But you, O God, are my king from of old; you bring salvation upon the earth.(Ps. 74:12)

기도제목

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아브라함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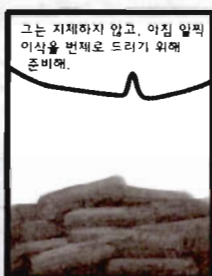
바로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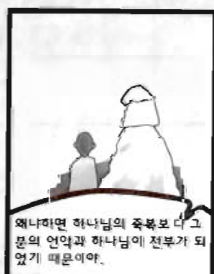
일국의 아버지란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
아.



아브라함은 온전히 그리고 죽
시 순종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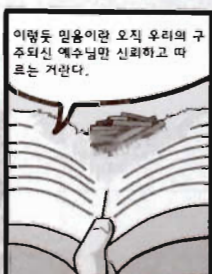
그는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준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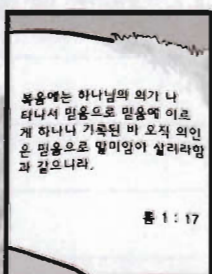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복보다 그
분의 언약과 하나님에 전부가 되
었기 때문이야.



갑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
의 자손이 번성되는 복을 허락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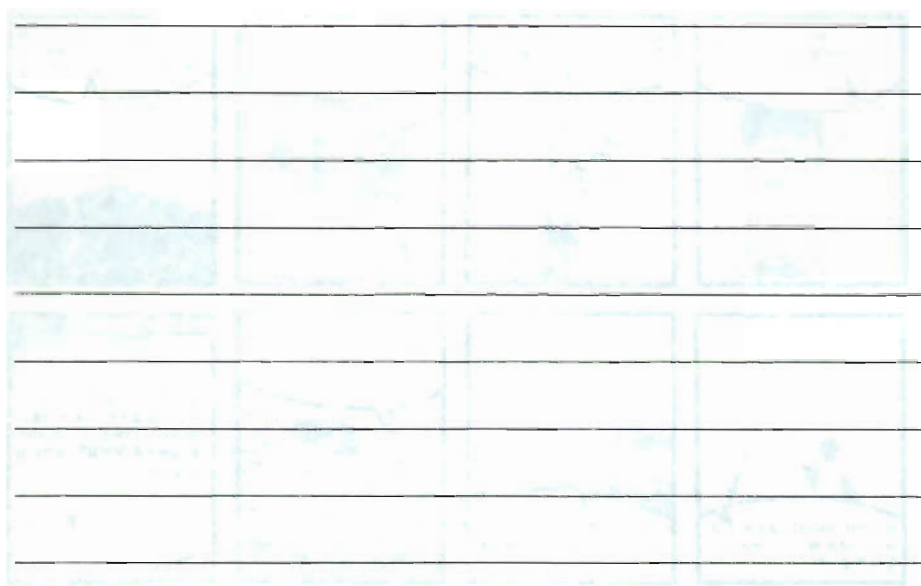


이렇듯 믿음이란 오직 우리의 구
주 되신 예수님만 신뢰하고 따
르는 거란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
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
게 하신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
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같으니라.

통 1 : 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3년 9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한정민 하옥성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